

실내공간에 나타나는 '신장식 경향(新裝飾 傾向)'에 관한 연구

- '공간에 특성화(site-space specific)'를 형성하는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ew Decoration Trend' Emerging from the Interior Space

- Focused on the factors in the making 'site-space specific' -

이진민* / Lee, Jin-Min

이수정** / Lee, Soo-Jeong

Abstract

A rational and logical sense of design often found in modernism(including minimalism) sometime deal with the criticism that such characteristics which derived from those of modernism, lack emotional qualities(arises from human feelings). It consequently took them to adopt traditional designs in the past, creating such conditions that constantly escapes from 'present one and back to the 'new'. This mode develops a trend in current interior design which decorative elements such as art work, traditional arts, folk crafts, flowers and green are much evident. Thus, using many decorative elements of the past(what was once banned since modernism), brings up the interesting point of view that needs to be discussed : a new decorative trend in today's interior design. It will approach by comparing significances of past decorative expressions with present through which investigation, will show a better understanding of recent characteristics in interior designing, a.k.a, a current trend since minimalism, embracing important qualities of culture, ecology and people - against today's less-inspired, standardizing spaces.

키워드 : site-space specific, New Decoration, Artwork, vernacular design, Gree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세계 디자인 시장의 주류였던 천편 일률적인 미니멀리즘이 재고됨과 동시에 새로운 방향이 다양하게 모색되는 시점에 있다고 하겠다. 미니멀리즘은 순수주의의 표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장식적인 디테일 없이 기하학적 추상만을 강조하였고, 극단적인 간결성, 단순성, 명료성, 반복성 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특성들은 동질화, 균질화 등으로 식상함을 가져왔고, 동시에 한계가 되었다. 미니멀리즘을 포함한 모더니즘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디자인은 '인간에 대한 고려의 부족'의 인식에 따라 과거의 전통적 장르로 회귀, 생태학적 접근 등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디자인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부터의 이탈(escape)과 새로운 상태로의 복귀(reversion)를 수반한다.

이러한 실내디자인의 새로운 흐름에 맞추어 예술품, 토속품,

민예품, 플라워, 그린 등의 장식적 요소들이 최근 실내공간에 등장하고 있다. 그것은 미니멀리즘을 포함한 모더니즘에 의해 사라졌던 실내 공간 속에 장식의 재등장을 가져왔고, 위의 여러 요소들은 서로 믹스(mix)되고, 매치(match)되어 색다른 공간인 '공간의 특성화(site-space specific)'¹⁾를 만들어 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의 '공간의 특성화'란 어떠한 공간에 특징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장식은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면서 생산된 부유물에 대하여 환경적, 문화적, 기술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유기적 관계를 같이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매슬로우(Abraham H. Maslow)는 욕구

1)'site-space specific'이란 'site-specific art(장소 지정형 미술)'에서 가져온 것인데, 한번 그 장소에 완성된 작품은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없거나, 특정한 장소와 함께 계획되어 설치되는 Artwork으로써, 그 장소만의 특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예로 벽화, 설치미술, 공공미술 등을 들 수 있다. 본 고에서 'site-space specific'이란 '장소(site)'와 '공간(space)' 그리고 '특성화(specific)'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 어떠한 공간에 특징적인 성격을 부여한다는 것으로써, '공간의 특성화(特性化)'라는 의미로 사용됨을 밝힌다. 즉, 그 장소에 있어야만 하는 일대 일의 개념이 아니라, 미니멀리즘으로 사라졌던 장식적 요소들이 최근 공간에 재등장하고 있는 현재, 예술품, 토속품, 민예품, 플라워, 그린 등이 바로 'site-space specific'을 형성해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공간을 특성화시켜주는 요소는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 정회원,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인테리어디자인 교수

** 정회원,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인테리어디자인 전공

단계설²⁾을 주장하며 욕구는 타고난 것이라고 했다. 욕구단계설 중 존경의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에 의해 장식의 행위가 행해지는 것이다. 장식은 인간의 본능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며, 금기시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은 아닌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모더니즘 이후 장식에 대한 금기는 이제 그 수명을 다하고 과거의 장식요소의 재현으로 회귀하는 경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장식적 요소들이 재등장하는 시점에 있어 실내디자인의 새로운 장식적 경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니멀리즘 후에 재등장하는 신(新) 장식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써, 과거와 현재에 있어 장식의 구현방법과 의미를 비교해보고, 이를 통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실내공간의 표현 특성을 파악함에 목적이 있다. 또한 앞으로의 또 다른 새로운 장식을 모색 및 전망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시공간적 범위는 장식과 비장식의 반복·순환의 과정에서 두 가지로 대별하여 고찰한다. 첫째, 고대부터 미니멀리즘까지의 역사적 고찰을 위한 시간적 범위와 둘째, 미니멀리즘 이후의 사례고찰을 위한 시간적 범위로 나뉜다. 특히 사례고찰을 위해 미니멀리즘 이후의 장식적 공간을 대상으로 동·서양의 주거공간을 비롯한 상업공간을 중심으로 한다. 본 사례조사를 위해 2000년 이후에 발간된 국·내외 건축, 실내건축, 인테리어 전문지를 통하여 사례사진을 수집하였다. 연구방법은 먼저, 장식의 개념 및 발생 배경, 역사적 고찰을 통해 현재 장식의 재등장에 대한 이해의 기반을 마련한 다음, 공간과 타 장르의 장식성 비교를 통해 장식의 의미를 살펴본다. 그리고 과거장식(모더니즘이전의 장식)과 신장식(新裝飾)을 요소적, 방법적, 내용적 측면으로 비교하여 최근의 장식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례고찰은 미니멀리즘 이후에 나타나는 실내공간을 대상(테크놀로지를 통한 장식은 제외)으로 4장의 구성을 사례분석 틀로 사용하였다.

2. 장식의 이해

2.1. 장식의 개념 및 정의

장식은 일종의 형식충동을 계기로 하는 근원적인 예술 활동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그 특색은 균형, 조화, 리듬 등의 형식원리에 의해 추상화되고 법칙미를 부여하는데 있다.³⁾

‘Ornament(오너먼트)’와 ‘Decoration(데코레이션)’은 대부분 같은 의미로 ‘장식’을 지칭하여 사용된다. 그러나 Ornament는 ‘Ordnung’ 즉, ‘Order’의 의미로부터 파생한다는 언어학적 의미를 상기해 볼 때 역시 Ornament는 ‘전체의 구성과 구조 등이 일체화하고 있는 장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Decoration은 단지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첨부되는 장식’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이 양자는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Memphis(멤피스)가 제시한 ‘표면성의 통속성(通俗性 : Banal Design)’과 관련된 ‘표면성의 의미효과를 위한 장식성’은 단순한 ‘장식주의(Decorativism)’와는 구별하여 이해되어야 한다.⁴⁾

또한 미학적 측면에서 장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제공해주는 표피적 조직의 수준을 넘어 공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하나의 표출로서 심오한 미적가치와 예술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2.2. 장식의 발생 배경

장식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의 하나인 미적 욕구에 기인하는 행위의 표현이며, 목적의식을 가진 자유롭고 창조적인 예술정서의 결과로 인간 정신의 물질적 형태의 표현이다.⁵⁾ 리글(Aloids Rigel)은 장식의 근원성을 ‘예술의지’라고 하고, 아득한 고대 동굴이나 유물 등에 새겨진 문양, 난해한 기둥 등이 모두가 ‘예술의지’에 생긴 것으로 보았다.⁶⁾

장식의 발생을 심리학적으로 보면, 허버드 리드는 ‘공백상태가 존재할 때, 어떤 장식을 이용하여 공백을 메우려 하는 것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생(生)의 욕구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간에게는 빈 공백을 메우고 싶어 하는 감정이 있는데 이것을 공백공포(空白恐怖; horror vacui)라고 하며 이러한 감정은 문명의 퇴폐기나, 미개인종 가운데서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버릴 수 없는 인간의 뿌리 깊은 감정으로 텅 빈 표면은 자제력이 강한 사람에게도 억제할 수 없는 매력의 대상이며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즐거움의 대상으로서 행하는 「낙서심리」 등이 그 예이다.⁷⁾ 기본적으로 빈 공간을 채우고 눈에는 휴지(休止)점을 주기 위한 심리적 필연으로 생겨난 것이다.⁸⁾

2.3. 역사적 고찰을 통한 장식과 비장식의 반복적 순환

과거의 여러 양식과 장식 요소들이 최근 실내공간에 또 다른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 디자인에 있어 ‘+性 디자인’은 감성

2)매슬로우(Abraham H. Maslow)가 주장한 욕구단계설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는 타고난 것이며, 욕구의 강도와 중요성에 따라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애정(사회적)욕구, 존경욕구, 자아실현욕구를 5단계로 분류하였다. Abraham H. Maslow, 인간의 동기와 성격, 조대봉 역, 교육과학사, 1992, p.47

3)논장편집부, 미학사전, 논장, 1988, p.346

4)이진민, 가구에 있어서 장식에 관한 고찰, 월간인테리어 2000. 04, p.138

5)www.iartyou.com/onlinealss/cyber_lecture/cyber, 이선영의 작가연구

6)이용완, 실내 디자인과 현대미술의 상관적 표현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론, 1996, p.61

7)허버트 리드, 디자인론, 미진사, 1997, p.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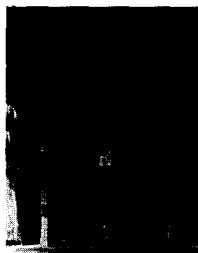
8)www.iartyou.com/onlinealss/cyber_lecture/cyber, 이선영의 작가연구

적(sensitivity), 복잡한(complex), 보다 많은(more), 추가(addition), 설치(install), 다양함(variety)으로, 이와 반대로 '-性 디자인'은 이성적(logic), 단순한(simplex), 절감(reduction), 절대적인, 완성의(holonic), 표준(standard) 등의 개념과 연결된다.9) 이러한 맥락에서 실내디자인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면 크게 장식적(+性 디자인)공간과 비장식적(-性 디자인)공간이 반복 순환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대 그리스에서 아르데코까지(BC.1900~AD.1930)

- 장식적(+性 디자인) 공간

기원전 장식의 개념은 미적 욕구에 의한 것으로, 장식은 건축물의 부속품으로 여겨졌다.10) 특히 아트웍은 르네상스시대까지 건축물과 하나로 생각되었고, 그 형태도 건축물과 일체화되어 나타났다. 즉, 건축물은 총체적인 미술작품이었다.11) 바로크, 로코코시대는 더 이상의 공간의 장식 형태는 없을 만큼 화려한 공간을 연출하였다.



<그림 1> 유바라, 스투파니지의 별장, 토리노 바로크시대의 실내 공간

1760년대에서 1830년대에 걸쳐 영국 사회를 지배했던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 기계문명과 공업화의 진전, 무역의 발달 등으로 고급스런 수공업품, 세계 민속품, 희귀한 식물 등이 공간을 가득 장식하게 되었으며 이 당시의 장식



<그림 2> 빅토리아 실내

식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12) 또한 20세기로 넘어오는 시기에 나타난 아르누보와 아르데코는 역사로부터 모티브를 구하지 않고, 예술을 본질로 하여 장식적인 공간을 추구하였다.13)

■ 모더니즘(1920~1960) - 비장식적(-性 디자인) 공간

모더니즘의 핵심적 이데올로기의 형성에 큰 기여를 한 인물인 아돌프 로스(Adolf Loos)는 1908년에는 「장식과 죄악(Ornament and Verbrechen)」을 간행하여, 그의 합리적인 건축론을 피력했다.14) 또한 미스 반 데 로에(Mies van der Rohe)는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less is more).”라는 주장을 하였고, 그것은 현대 건축물과 공간의 표현형태를 반영해 준다. 이러한 장식의 비판과 함께 기능주



<그림 3> 모더니즘의 실내 공간

의를 우선으로 하는 모더니즘의 공간에 있어 장식은 사라지게 된다. 실용성과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와 미학적 혁명, 거기에 표준화라고 하는 것의 결합을 구현한 것으로, 전통을 포기한 모더니즘에 있어 장식은 더 이상 불필요한 요소일 뿐이다.

■ 포스트모더니즘(1960~1990) - 장식적(+性 디자인) 공간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장식과 비장식의 관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장식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정리하였다. 오랫동안 좋은 디자인, 기능적 디자인을 의미하여 왔던 모더니즘은 한편에선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는데, 그것은 역사적 연속성이나 장식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가 무시되어 왔고, 확실적인 디자인으로 인해 인간성이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다시 공간에 장식의 발을 들여놓게 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양성, 상징성, 장식성, 회화성, 암시, 역사주의 등 모든 것을 포함한 포용력을 가진다.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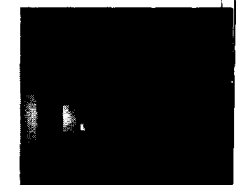
<그림 4> 찰스무어, 포스트모더니즘의 실내공간

■ 미니멀리즘(1990~2000) - 비장식적(-性 디자인) 공간

1990년 전후에 세기말과 맞물리면서 나타난 미니멀리즘은 순수주의의 표명 아래 단순성, 명료성, 반복성, 사물성을 가지며16) 건축과 실내공간의 장식을 또 다시 배척하게 된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며 미니멀리즘의 극단적인 단순함과 축소는 모더니즘과 마찬가지로 확실성, 비인간성 등의 한계를 드러내며 동양적 정신문화와 합쳐지며 젠 스타일과 오리엔탈 스타일을 나타나게 한다. 그러나 최근 젠과 오리엔탈 스타일 공간은 미니멀리즘의 단순함에 대나무 등의 그린(Green)과 실크, 도자기 등을 사용하여 장식적 요소를 등장시키고 있으며 또한 퓨전의 영향으로 현대의 실내 공간은 어느 한 스타일이 아닌, 여러 스타일(즉, 아시아 스타일, 인도 스타일, 에스닉 등)이 공존하며 장식적 요소가 첨가되고 있다.



<그림 5> 미니멀리즘의 상업공간



<그림 6> Royal SHS, CHINA

3. 공간과 타 장르에서 나타나는 장식성의 비교

타타르키비츠(Wladyslaw Tatarkiewicz)는 “시각예술에서는 흔히 구조(structure)와 장식(ornament), 또는 구성과 의장(意匠)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구별된다. 이러한 대비는 건축과 가구제조에서 특별한 비중을 갖지만 광의로 해석하면 모든 예술,

9)이진민,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한·일 생활환경에 대한 비교 연구(34호)

동경예대 미술학박사, 1993. 02에서 '+性 디자인, -性 디자인' 용어 인용

10)박 흥, 현대건축과 실내디자인, 기문당, p.127

11)김현희, 경계 없는 현대미술,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1994, p.20

12)정환목 외, 건축의 이해, 대한교육문화원, 2001, p.196

13)John Pile, 실내디자인사, 서우, 2002, p.290

14)조영배, 19세기 새로운 장식관의 형성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논문, 1998. 8

15)이연숙, 실내디자인 양식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pp.238-239

16)이현정, 퓨전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숙대 석론, 2002, p.20

심지어는 문학에까지 적용된다.”¹⁷⁾고 하였다. 그의 글을 통해서 장식적이 적용되는 범위는 조형예술의 모든 장르임을 알 수 있다. 예술작품은 공간이든 회화든 문학이든 음악이든 모두 일정한 컴퍼지션을 가지고 있다. 기둥, 바닥, 천장, 색채, 형태, 질감, 문자나 음표, 악음(도, 레, 미, 파, 솔, 라, 시) 등의 요소들은 모종의 질서 있는 구조를 보여주며, 결코 무작위적이지 않다.¹⁸⁾ 따라서 최근 장식적 공간의 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타 장르인 회화, 문학, 음악에서의 장식성과 비교를 통해 공간에서의 장식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공간에서의 구조와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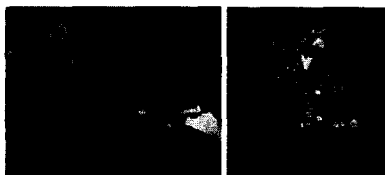
공간에 있어서 구조는 공간을 창조하는 가장 기본, 기초가 되는 것으로 건물을 지탱해주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구조 자체가 하나의 디자인으로써 계획되며 인간이 바로 접하게 되는 의미의 매개체가 된다. 공간에 있어 장식은 ‘공간을 대상으로 질서부여를 통한 미의 구현’이라는 근본 속성으로 하고 있으며 상징적 혹은 모방적이거나 추상적 혹은 순수 형태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장식은 장식이 부여되는 바탕(구조)과의 관계에 의해 파악되며 장식의 적용은 그 바탕이 되는 공간과 부가되어지는 장식 그리고 주체로서의 인간, 이 세 가지 요소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¹⁹⁾ 또한 장식은 단순한 표피성을 넘어선 공간과 인간 사이에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3.2. 타 장르에서의 구조와 장식

(1) 회화

회화는 주제와 대상의 재현적 구성, 원근법적 구도와 해부학적 형태 등 화면을 만드는 기호 레퍼토리 내지 컴퍼지션으로서 태생을 구성한다. 이러한 태생은 회화의 논리적 골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화의 전언으로서의 의미정보를 전달한다. 이 태생에 개성적인 필체로 색이 자유롭게 칠해지는 과정에서는 전혀 새로운 미적 정보가 발생하는 것이다.²⁰⁾

회화에 있어서 장식은 목적의식을 가진 자유롭고 창조적인 예술정서의 결과이다.²¹⁾ 마티스는 화려하고 강렬한 색채, 평면적인 화면구성, 강렬한 무늬 등으로, 클림트는 장식 그 자체가 내용이 되어 생략되고 농축되어진 상징적 문양으로 나타난다.²²⁾ 회화작품에 있



<그림 7> 앙리마티스, 붉은 색의 조화
<그림 8> 클림트, 입맞춤

17)Wladyslaw Tatarkiewicz, 여섯 가지 개념의 역사, 이용대 역, 이론과 실천, 1990, p.192
18)가와노 히로시, 예술·기호·정보, 진중권 역, 새길, p.55
19)장민호, 장식의 현시대적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2000, p.34
20)가와노 히로시, 예술·기호·정보, 진중권 역, 새길, p.187
21)정명아, 현대회화에서의 패턴과 장식성에 관한 연구, 숙대 석론, 2000, p.1

어 장식적이라는 개념은 미술이라 부르는 개념과 같은 의미이며, 이러한 장식의 목적은 행복한 감정과 창조, 그리고 주위환경의 조화감을 느끼는데 있는 것이다. 또한 상징적 의미도 함께 한다. 회화에 있어 장식성은 작품 속에 다채롭고 화려한 화면을 제공하였고, 순수예술의 영역을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2) 문학

문학은 우선 시나 소설과 같은 텍스트를 지칭하며, 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정한 구조는 단어들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 그 단어들이 함축하는 것, 말해진 것과 말해지는 방식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또한 문학은 다양한 요소와 구성 성분이 복합적인 관계로 짜여지는 언어이며 또한 허구적인 세계를 투시하는 언어적인 사건이다.²³⁾

문학에 있어 문체의 부가된 장식이라는 개념은 유럽의 수사의 전통에서 시작된 것으로 텍스트에 장식성이 너무 없으면, 그 텍스트는 학술서처럼 무미건조하게 된다. 그러나 장식성이 너무 지나치면 허식이 되고 마는데, 이것은 대대함·부자연스럽음·과장이라고도 한다.²⁴⁾ 이렇듯 문학에 있어 장식은 문장을 확장시키기도 하며 기본 문장 구조에 비해 구체적이고 섬세한 느낌을 준다. 또한 보다 복잡한 의미 전달을 쉽게 해 주고 쓴 사람의 개성과 특성을 부여해 준다.²⁵⁾

(3) 음악

음악은 화성과 대위법 속의 음악적 통사구조에 의해서 표시되는 내면화된 주관적 확률의 복합적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음악은 한슬릭(E. Hanslick)이 ‘울려 퍼지는 형식’이라도 했던 것처럼 그 독특한 음악의 분절화된 구성에 의해 감정의 고양, 쇠퇴, 교착의 리듬과 패턴을 표현하며, 논술적 상징인 언어로는 도저히 포착할 수 없는 깊은 정감에 가득찬 기분을 창출한다.²⁶⁾ 음악에 있어 장식

음²⁷⁾은 음악의 화성, 리듬, 멜로디를 변형시키고 음들 서로 잘 결합하여 연결시킴으로써 선율을 아름답게 하고, 부르기 쉽게 하며,



<그림 9> 앞꾸밈음 : 선율을 구성하는 음표 앞에 붙여진 2음 이상의 꾸밈음으로 악센트는 주음에 붙는다.

생기 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만든다. 그 외에도 정서를 강하게 표현하고 공허한 곳을 채우며 청중의 주의를 환기시키다.²⁸⁾

공간과 타 장르에서의 구조와 장식의 비교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노승숙, 회화의 장식성에 관한 연구, 숙대 석론, 1998, p.29
23)조너선 켈러, 문학기론, 이은경·임옥희 역, 동문선, p.55
24)H. P. Plett, 수사학과 텍스트 분석, 양태종 역, 동인, 2002, pp.65-66
25)박덕유, 문장론의 이해, 한국문화사, 2002, p.168
26)가와노 히로시, 예술·기호·정보, 진중권 역, 새길, p.85
27)장식음이란, 어떤 음을 장식하기 위하여 장식되는 음의 앞뒤에 작음 음표를 표기하거나 특정한 기호로 표기하는 음형을 가리킨다.
28)Hans-Peter Schmitz, 18세기 음악의 장식기법, 이한성·신상호 역, 재순악보출판사, 1980, p.30

<표 1> 공간·회화·문학·음악에서의 장식성의 비교

	구 조	장 식
공간	-공간을 창조하는 가장 기본, 기초가 되는 것. -의미의 매개체	-공간을 대상으로 질서부여를 통한 미의 구현 -상징적 혹은 모방적이거나 추상적 혹은 순수 형태적으로 표현 -공간과 인간의 매개체
타 장 르 의 장 식 성	회 화	-회면을 만드는 기호 내피토리로 대생은 회화의 논리적 골격 -회화의 전언으로서의 의미정보를 전달
	문 학	-복합적인 관계로 짜여진 언어 -허구적인 세계를 투시하는 언어적 사건
	음 악	-화성과 대위법 속의 통시구조에 내면화된 주관적 확률의 복합적 시스템 -음악의 분절화된 구성에 감정의 고양, 교착의 리듬과 패턴 표현
비 교	-가장 기본적인 의미전달을 함 -구조를 이루는 구성요소들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Oder(질서·규칙)에 의해 행해짐	-인간의 내적표현 -아름다움의 표현 -인간의 본능적 욕구 -Oder(질서·규칙)에 의한 특성부여

4. 과거장식과 신장식(新裝飾)의 비교

미니멀리즘의 시대를 뒤로하고 실내공간에 장식적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과거 장식적 요소들을 통해 공간의 특정 부분의 디테일을 높여줌으로써 장소를 특성화해주고 있는 것이다. 과거 장식과 신장식의 비교는 장식이라는 동일한 선상에서 최근의 장식이 방법, 의미 면에서 어떻게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요소적, 방법적, 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과거장식(모더니즘 이전의 장식)과 신장식(新裝飾)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4.1. 요소적 측면

장식은 인간 본연의 욕구로 계속 반복되어 왔고, 테크놀로지를 통한 장식을 제외한다면 장식의 모티브는 공예품, 예술품, 그런 등으로 동일하다. 과거 인류가 인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인간의 욕구에 의해 장식해온 이제까지의 역사를 볼 때, 인간의 예술품, 그 지역의 특산물, 토속품, 민예품, 정원에서 따온 꽃 등의 식물에 의해서 장식을 해왔다.²⁹⁾ 최근 공간의 특성화를 형성해주는 요소인 예술품, 토속품, 플라워 등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과거부터 함께 해온 것이다. 따라서 모든 공간의 장식요소는 아트웍, 버네클러 디자인, 그런 등으로 크게 카테고리화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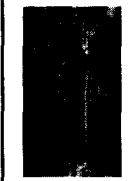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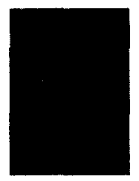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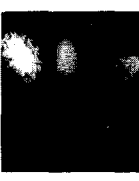


(1) 아트웍(Artwork)

아트는 오랜 역사동안 우리의 환경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었다. 선사시대 동굴의 회화, 이집트 무덤의 벽화와 부조,

29)H. W. Janson, History of Art, 내용 인용

폼페이 벽화, 르네상스 시대의 프레스코화(Fresco)와 조각품 등은 우리의 환경을 보다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는 인간의 계속된 욕구에 대한 증거이다. 과거 장식의 대부분은 장식미술가에 의한 회화, 조각으로 하나의 작품이며 종교적 의미가 강하였고, 스케일도 거대하였다. 오늘날 아트웍은 실내를 완성시키는 모든 종류의 오브제를 의미하며 예술가로부터 분리되어 자립적인 생명을 획득하여 인격화되고, 정신적인 호흡을 하는 독립적인 주체가 된다. 최근 아트웍의 증가는 단순한 장식의 기능을 넘어서 공간과 인간, 그리고 아트웍이 서로 긴밀하게 작용하여 미적 체험을 유발하게 되고 인지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한다.³⁰⁾ 또한 아트웍은 하나의 감성매체로서 신 공예·미술가, 비주류 아티스트들에 의해 그 영역도 확대되고 있으며, 개인의 취미에 의한 수집도 공간에 장식적 역할을 하고 있다. 사례사진은 다음과 같다.

<표 2> 아트웍의 장식적 사례

	과거의 장식	신장식(新裝飾)	
	장식미술가의 작품, 종교, 예술, 회화, 조각	신 공예·미술가, 비주류 아티스트, 감성 매체, 취미로의 수집	
아 트 웍			
	<그림 10> 폼페이주택벽화	<그림 11>시스티나 예배당	<그림 12>공두, STUDIO CHOLWOCK
			
	<그림 14> 성당내부의 조각상	<그림 15> 프로렌스의 Vecchio성	<그림 16>L 라운지, SEL Interior Design
			<그림 13>Finding Room at the Top
			<그림 17>neel 21 사육, 유정란

(2) 버네클러 디자인(Vernacular Design)

모더니즘 시대의 퇴조와 함께 ‘풍토와 토속의 디자인’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일종의 회귀본능과 같은 것이다.³¹⁾ 또한 과거의 기억과 지역 고유의 기호, 향토적 양식, 풍토적 재료, 문화적 지향성 등이 새로운 디자인을 위한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으며 직접적 소품으로 공간에 장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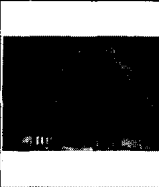







버네클러 디자인(vernacular design)이란 용어는 전통적이고 가족적인 방식으로 일하는 소박한 사람들의 생산품을 말하며 익명의 디자인(anonymous design)을 말한다. 그들의 디자인은

30)강희정, 실내디자인에 있어서 Artwork의 적용에 관한 연구, 건대 석론, 1997, p.25

31)권영길,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국재, 2001, p.199

특정한 방법으로 어떤 개개의 사물을 창조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에서 보다는 필요에 따른 것으로 자급자족의 가내수공업으로 제작된다.³²⁾ 따라서 버내쿨러 디자인은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며 종교적 특성과 문화까지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함과 동시에 이국적 취향을 느끼게 하고, 감각에 직접적으로 호소하여 시각적, 육체적 안락감을 부여해 준다. 또한 버내쿨러 건축물을 통한 탐구는 생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모체가 되고 있으며, 이는 생태건축과 에스닉 스타일의 공간으로의 확장을 보이고 있다. 사례사진은 다음과 같다.

<표 3> 버내쿨러 디자인의 장식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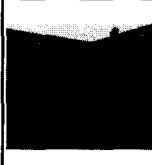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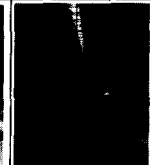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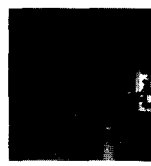


과거의 장식		신장식(新裝飾)	
가내수공업의 지역성 반영, 종교적 특성과 문화의 반영		세계화와 지역화의 공존, 풍토성, 문화적 정체성	
			
<그림 18> Guinea의 Hut	<그림 19> Indian의 Ta pee	<그림 20> 다질링, 박상희/박혜영	<그림 21> 강가스타민경식건축사무소
			
<그림 22> 제주성읍제주마을	<그림 23> 빗자루들의 평범한 소품들	<그림 24> Royal SHS 밍 1956	<그림 25> 새벽파도, 정희정

(3) 그린(Green)

그린(Green) 즉,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자연적 요소로서 인공적인 실내공간에 생명력과 활기를 불어 넣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 공간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적 분위기를 물론 느끼게 한다. 식물은 그 자체의 재료적 특성으로 수세기동안 실내장식의 중요한 요소로 그들의 위치와 기능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가끔 식물은 기능적, 상징적 혹은 호기심과 진귀함에 의한 수집으로써 존재하기도 하며, 식물은 전체 장식적인 계획의 중요한 요소로써 영감을 준다.³³⁾ 이러한 면과 함께 최근 그린의 실내공간으로의 도입은 아파트 베란다 조경의 증가와 식음료 공간에 가든닝(gardening)의 붐을 일으키며 장식적 요소로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심리적 기능과 함께 감성적 모티브로 사용되며 에콜로지 디자인과도 연결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례사진은 다음과 같다.

32)정환목 등, 건축의 이해, 대학교육문화원, p.180
33)이진민, 공공환경디자인·론, 중앙M&B, 1998, p.194 참조

<표 4> 그린의 장식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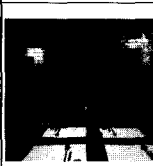

과거의 장식		신장식(新裝飾)	
재료적 특성, 1차재의 사용		심리적, 미적 기능, Ecology, 감성적 모티브	
			
<그림 26> 로마의 폼페이주택의 정원	<그림 27> 19세기 초 실내 그림	<그림 28> Beauty Salon, nMassaki Norita	<그림 29> 雨山, 박해선, 전향란
			
<그림 30> 실외조경	<그림 31> 실내공간의 그린	<그림 32> 롯데 영플라자 가든 라이프, 신성순	<그림 33> 삼B&A, 배대웅, 성출판사 사옥 내 레스토랑

4.2. 방법적 측면

공간에 있어서 장식은 실내를 완성시키는 것으로써 움직이기 용이한 것으로부터 움직일 수 없는 것 등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 장식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가 장식 요소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방법적 측면에서 장식을 분류 유형화하여 과거장식과 신장식의 사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환경화에 따른 장식의 분류 -환경적/오브제적

<표 5> '환경화/대상화'에 따른 장식의 분류

	과거의 장식		신장식(新裝飾)	
	환경적	대상적	환경적	오브제적
환경화 / 대상화	공룡, 볼트, 아치, Pendentive	가구, 악세서리	공간의 구축적 요소	각종 오브제
				
	<그림 34> 성소피아 사원	<그림 35> 로코코의 실내	<그림 36> 공두, STUDIO CHOLWOCK	<그림 37> Royal SHS, 밍 1956
				
<그림 38> 노트르담 대성당, 샤르트르	<그림 39> 신고전시대의 실내	<그림 40> 창담 안, 이세인, 안현기	<그림 41> Finding Room at the Top, Gwathmey Siegel &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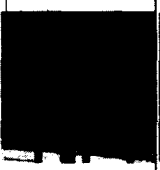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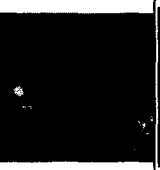






환경적 장식이란 장식이 홀로 독립될 수 없고 실내디자인 기본요소(천장, 바닥, 벽, 기둥, 개구부) 등의 환경적 요소와 함

게 일체화 되어 나타나는 장식을 말한다. 18세기 이전의 장식 형태는 모두 건축물과 일체화된 형태로 나타나며 궁륭, 볼트, 아치 등 그 구조물 자체도 장식적이다. 반면에 오브제적 장식이란 장식적 요소가 건축물과 일체화 되지 않고 독립되어 움직일 수 있는 가구, 악세서리(accessory) 등의 가동적 장식을 말한다. 최근의 장식 형태는 구조물 자체의 장식 보다는 오브제 자체가 상징적 의미와 동시에 장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례 사진은 다음과 같다.

(2) 표피성에 따른 장식의 분류 -커버링/랩핑

표피성에 따른 장식은 커버링(covering), 랩핑(wrapping)으로 분류될 수 있다. 커버링 장식은 마감을 또 다른 물질로 마감하여 그 내부를 알 수 없게 덮는 장식으로 모자이크, 템페라, 프레스코 등이 있으며 내피와 외피의 장식 사이에 갭(gap), 즉 공간의 간격 차이가 없는 형태이다. 랩핑 장식은 두르거나 감싸는 형태로 외피의 장식적 요소를 떼어 분리할 수 있는, 즉 구조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말한다. 예로 커튼, 테페스트리 등이 있다. 또한 이들의 본질적인 차이는 커버링은 표피 자체에 중요함을 둔 것이고, 랩핑은 표피가 감싸고 있는 내용물의 형태를 중요시한다.³⁴⁾ 최근에는 과거의 형태 뿐 아니라, 신소재들의 발달로 Hyper Surface와 lighting 등의 다양한 커버링과 랩핑 장식이 나타나고 있다. 사례 사진은 다음과 같다.

<표 6> '표피성'에 따른 장식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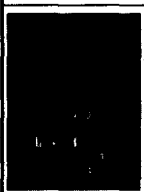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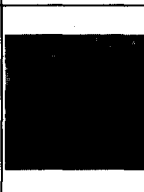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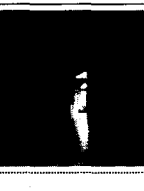


	과거의 장식		신장식(新裝飾)	
	Covering	Wrapping	Covering	Wrapping
표 피 성	모자이크, 템페라, 프레스코	커튼, 테페스트리	Hyper Surface, Skin, 신소재의 마감재	Fabric, Lighting 등 비물질적 경향의 요소들
				
	<그림 42> 이슬람사원의 모자이크	<그림 43> Ann Getty and Associates, A Tale of Two Houses	<그림 44> 콩두, STUDIO CHOLWOCK	<그림 45> 다질링, 박상희/박혜영
				
	<그림 46> 프레스코	<그림 47> 테페스트리	<그림 48> Toyo Ito, Sendai Mediateque	<그림 49> light bar and restaurant

(3) '양(量)적 가감(加減)'에 따른 장식의 분류 -부가적/소거적

장식에 있어서도 디자인의 +/-성디자인과 마찬가지로 플러스적인 것과 마이너스적인 것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부가

적 장식은 +性으로, 소거적 장식은 -性으로 볼 수 있다. 장식에 있어 양적 정도에 따라 부가적 장식과 소거적 장식으로 나눌 수 있다. 과거 부가적 장식은 공간이 각종 조각과 회화 등으로 빈틈없이 채워지거나 구조자체가 매우 장식적인 것을 말한다. 소거적 장식은 부가적 장식에 비해 몇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장식되는 것을 말하며, Niche³⁵⁾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부가적 장식은 클래식스타일이 대표적이며 요소의 추가를 말하고, 소거적 장식은 젠스타일로 소품을 이용한 장식으로써 요소의 제거를 말한다. 사례 사진은 다음과 같다.

<표 7> '양적 가감'에 따른 장식의 분류

	과거의 장식		신장식(新裝飾)	
	부가적	소거적	부가적	소거적
양 적 가 감	각종 조각, Column	Niche	요소의 추가 (클래식스타일)	요소의 제거 (젠스타일)
				
	<그림 50> 상베드로의 Baldacchino	<그림 51> 신고전주의 실내	<그림 52> Maison Orleans	<그림 53> 애시스, 최시형, 힐탑아파트
				
	<그림 54> Delegacio del Govern de Catalunya	<그림 55> 신고전주의 실내	<그림 56> 아트웍으로 가득 찬 실내	<그림 57> 자하연 한의원, 월가디자인, 박성철

4.3. 내용적 측면

장식개념의 기원이 되는 고대에 있어서 장식은 질서체계로 이해되어지는 세계(우주)를 모방함을 의미하였다. 중세의 장식은 절대자에 대한 상징이었으며 19세기 장식미술에 있어서 장식은 유기적인 질서를 모방적이거나 순수 형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³⁶⁾ 즉 과거장식의 의미는 곧 권력과 부를 상징하였고, 종교적 기반을 보여주며, 이상 세계 지향을 의미한다. 또한 이 시기에 장식은 건축과 일체화되며 부속물, 부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장식적 경향은 그 의미와 내용을 달리 한다.

모더니즘의 디자인 사조가 지역 문화와 주위환경, 그리고 그에 따른 아이덴티티(identity)와 장소성의 상실로 한계를 드러내고, 미니멀리즘의 획일화로 인한 식상함, 인간의 회귀본능 등을 느끼면서 민족성, 지방성, 휴머니티, 낭만성, 감성적 디자인

35)서양건축에서 벽에 오목하게 파 놓은 부분. 바로크, 로코코 시대에 비해 부조적 장식이 많이 줄어들었다.

36)장민호, 장식의 현시대적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2000, p.34

추구 등 많은 시도들로 오늘날 디자인은 다원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아트웍, 버내컬러 디자인, 그린 등의 요소들이 공간에 장식적 요소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예술화, 삶의 질적 향상 도모, 문화적 가치, 친환경화 등을 꾀하며 공간의 가치를 높여주고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게 하고, 오랜 세월동안 인간과 함께 해온 '친 인간성'이라는 성질을 가지며 감성적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또한 시각 또는 감성적 경험을 통한 새로운 장식으로써 인간과 공간의 단절을 극복하는 고리로서 매개체 역할을 하며 문화지향디자인, 에코디자인(Eco-design)의 대응하는 현상이며 결론적으로 인간 중심 디자인(Human-central Design)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표 8> 장식의 내용측면에서의 비교

과거의 장식		신장식(新裝飾)	
권력중심, 종교적 기반, 이상세계 지향		인간중심, Ecology 기반, 문항지향	
<그림 58> 성피에트로대 성당	<그림 59> 루이14세 침실	<그림 60> 새벽파도, 정희정	<그림 61> 롯데 영플라자 가든 라이프, 신성순
<그림 62> 빅토리아 실내	<그림 63> 고전주의 실내	<그림 64> 강가스타, 민경식건축사무소	<그림 65> 雨山, 박해선, 전향란

4.4. '공간의 특성화(site-space specific)'를 형성하는 장식적 사례 및 개념어 도출

공간사례는 미니멀리즘 이후의 실내공간을 대상으로 하였고, 최근 장식적 공간 사례를 앞에서 제시된 요소적 측면으로 아트웍, 버내컬러 디자인, 그린으로 분리한 뒤, 방법 및 형태, 내용으로 사례 분석하여 공간의 특성을 표로 정리하였다.

<표 9> 공간의 특성화를 형성하는 장식적 표현 공간 사례

사 례 분 석					
요소적 측면의 분류	아트웍	공두, STUDIO CHOLWOOK	Finding Room at the Top, Gwathmey Siegel & Association	L 라운지, SEL Interior Design	Need 21, 유정환

방법 및 형태	-벽화에 의한 커버링 장식 -고정적	-오브제적 장식 -수집에 의한 위치가동적 형태	-LED조명 투사에 의한 가변성 -비고정성	-오브제적 장식
공통 개념	고정적 장식과 가동적 장식의 조화			
내용	-심미적 효과 -공간의 주목성	-아트웍에 의한 공간의 차별화	-지속적 움직임에 의한 유희 -공간의 다양함 연출	-오브제에 의한 주목성, 상징성
공통 개념	심미성, 주목성, 상징성, Humidity의 역할			
양식	모던 & 오리엔탈 스타일	모던 스타일	오리엔탈 & 모던 스타일	모던 스타일
사진	다질링, 박상희/박혜영	강가스타, 민경식건축사무소	Royal SHS 명 1966	새벽파도, 정희정
방법 및 형태	-랩핑 장식 -천막에 의한 가변적 공간 형성 -비영역성 -개방성	-오브제적 장식 빛과 지역적 소품에 의한 신비로움 연출	-오브제적 장식 -소품에 의한 가동적 장식	-환경화/오브제적 장식
공통 개념	지역적, 민족적 소품에 의한 디스플레이			
내용	-이국적 공간 연출을 통한 간접적 체험	-이국적 공간 연출을 통한 공간 차별화	-오래된 소품에 의한 낭만적 향수성	-토속적 오브제에 의한 공간의 상징화
공통 개념	정체성, 간접적 체험화, 지역적 차별화, 다양성			
양식	유목적 스타일	인도 스타일	앤티크 스타일	토속적 스타일
사진	Beauty Salo, nMassaki Norita	雨山, 박해선, 전향란	롯데 영플라자 가든 라이프, 신성순	삼B&A, 배대용, 성출판사 사옥 내 레스토랑
방법 및 형태	-오브제적 장식 -그린의 집적화(濃的化)에 의한 장식 효과	-커버링 장식 -그린에 의한 벽면 장식과 실내·외 상호관입	-환경화 장식 -자연그대로의 다양한 식물 도입	-환경화 장식 -식재와 자연 요소의 도입
공통 개념	자연 물성 그대로의 실내공간으로의 도입			
내용	-풀리워와 그린의 상징화를 통한 공간의 상징화	-친자연성 실내외의 상호관입성	-친자연성의 자연과의 동거양식	-친자연성의 자연 그대로의 실내공간으로의 도입
공통 개념	자연과의 동거양식, 친자연성			
양식	모던 & 로맨틱 스타일	전통적 스타일	내추럴 스타일	앤티크 & 내추럴 스타일

장식적 사례의 공통 개념어를 정리하고 특성화 개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공통개념어 및 특성화 개념 도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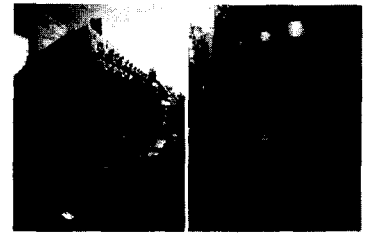
	공통 개념어	특성화 개념
방법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적 장식과 가동적 장식의 조화 * 지역적, 민족적 소품에 의한 디스플레이 * 자연 물성 그대로의 실내 공간으로의 도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탈 확정성 2. 탈 기교성 3. 컨셉트에 의한 표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미성 * 주목성 * 상징성 * Humidity의 역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적 체험 공간 2. 공간의 상징화 3. Intensity한 주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체성 * 간접적 체험화 * 지역적 차별화 * 다양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별성과 보편성의 조화 2. 환원적 본질의 특성 3. 간접적 체험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자연성 * 자연과의 동거양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생·상생의 친환경 디자인 2. 자연의 모랄(Moral)을 도입
양식	동일한 양식 또는 스타일이 아닌 다양한 스타일이 한 공간에 믹스 앤 매치(Mix and Match)되어 나타남	

체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획일화 되어 가고 있는 공간에 있어 직관적 특질에 대치할만한 특징으로서 중요한 일면이 있다.

5.2. 모색 및 전망 -하이테크와 생명성의 통합을 통한 새로운 장식성

앞으로의 공간은 Hi-tech(하이테크) design을 기본으로, operation(작동)과 program(프로그램)에 의해 다양하게 연출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감성공학인 Hi-touch(하이터치) design이 발달할 것이다. 이는 인간성 회복과 인간 감성을 중요시하는 생태학적 가치관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이 가장 잘 나타난 예로, Gaetano Pesce의 'The Organic Building(Osaka, Japan, 1990-1993)'이 있다. 이

건물의 퍼사드(facade)는 콘크리트 구조에 화분형태와 결합된 가벼운 패널과 파이프(pipe)관으로 덮여 있다. 또한 이 화분에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심어져 있



<그림 66> Gaetano Pesce, The Organic Building, Osaka, 1990-1993

으며 수직의 가든(garden) 형태로 건물 외부를 장식한다. 또한 단순한 표피적 장식에 그치지 않고, 화분과 화분을 연결한 파이프는 물이 자동적으로 순환하며 살아있는 식물의 장식성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 이것은 공간디자인, 생명공학, 미학, 디자인 감성 등의 집결체인 것이다.

Hi-tech와 생명성은 상반되는 개념이나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말처럼 Hi-tech의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간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어떻게 공간에 잘 동화시켜 나갈 것인가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장식성은 공간을 부분, 혹은 전체를 상징하는 기호로써 중요한 키(key)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Abraham H. Maslow, 인간의 동기와 성격, 조대봉 역, 교육과학사, 1992
2. 논장편집부, 미학사전, 논장, 1988
3. 이진민, 가구에 있어서 장식에 관한 고찰, 월간인테리어 2000. 04
4. www.iartyou.com/onlinecalss/cyber_lecture/cyber, 이선영의 작가연구
5. 이용완, 실내 디자인과 현대미술의 상관적 표현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론, 1996
6. 하버트 리이드, 디자인론, 미진사, 1997
7. 이진민,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한·일 생활환경에 대한 비교 연구(34호), 동경에대 미술학박사, 1993. 02에서 '+성 디자인, -성 디자인' 용어 인용
8. 박홍, 현대건축과 실내디자인, 기문당
9. 김현희, 경계 없는 현대미술,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1994
10. 정환목 외, 건축의 이해, 대한교육문화원, 2001
11. John Pile, 실내디자인사, 서우, 2002

5. 결론 및 새로운 장식성의 모색 및 전망

5.1. 결론

최근 장식의 재등장은 장식의 반복·순환적인 역사적 경위와 함께 인간 본능 욕구에의 표현, 미니멀리즘의 획일화·동질화에 대한 식상함, 이성적 시대에서 감성적 시대로의 변화 등과 맞물리며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장식은 질서·규칙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인간의 내적인 아름다움의 표현 욕구에 의한 것이다. 과거 장식이 종교적이고, 부와 권력의 상징, 부가적 꾸밈에 지나지 않았다면 최근의 아트웍, 버내쿨러 디자인, 그린 등의 요소들은 인간의 회귀본능을 느끼면서 예술성, 민족성, 지역성, 낭만성, 향수성, 휴머니티 등의 성격을 가지며 문화지향 디자인, 에코디자인, 인간중심디자인의 시대적 이슈에 대응하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최근 나타나는 장식의 특성은 미적 체험 공간, 공간의 상징화, 인텐서티(Intensity)한 주목성, 개별성과 보편성의 조화, 간접적 체험공간, 공생·상생의 친환경디자인, 자연의 모랄 도입으로, 탈확정성, 탈기교성, 컨셉트에 의한 표현으로 나타나며 동일한 양식 또는 스타일이 아닌 다양한 스타일이 한 공간에 믹스 앤 매치되어 나타난다.

장식은 그 자체가 아무 의미 없이 공간에 부여된다면 그것은 단지 표피적이고 부가적인 꾸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공간에 생활하고 있는 삶의 성격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공간과 인간의 사이를 좀 더 가깝게 하는 매개

12. 조영배, 19세기 새로운 장식관의 형성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논문, 1998
13. 이연숙, 실내디자인 양식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14. 이현정, 퓨전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숙대 석론, 2002
15. Wladyslaw Tatarkiewicz, 여섯 가지 개념의 역사, 이용대 역, 이론과 실천, 1990
16. 가와노 히로시, 예술·기호·정보, 진중권 역, 새길
17. 장민호, 장식의 현시대적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2000
18. 정명아, 현대 회화에서의 패턴과 장식성에 관한 연구, 숙대 석론, 2000
19. 노승숙, 회화의 장식성에 관한 연구, 숙대 석론, 1998
20. 조너선 컬러, 문학이론, 이은경·임옥희 역, 동문선
21. H. P. Plett, 수사학과 텍스트 분석, 양태종 역, 동인, 2002
22. 박덕유, 문장론의 이해, 한국문화사, 2002
23. Hans-Peter Schmitz, 18세기 음악의 장식기법, 이한성·신상호 역, 재순악보출판사, 1980
24. H. W. Janson, History of Art
25. 강희정, 실내디자인에 있어서 Artwork의 적용에 관한 연구, 건대 석론, 1997
26. 권영길,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국제, 2001
27. 이진민, 공공환경디자인·論, 중앙M&B, 1998
28. 이진민 외, 토폴로지, 인테리어 연구지, 숙명여대디자인대학원, 2003

<접수 : 2004. 4. 30>